

<集安高句麗碑>의 서체와 그 영향*

The Calligraphic Script of *Jipangoguryeobi* and Its Influence

정 현 숙 (Jung, Hyun-soo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신라 서예에 미친 영향 |
| 2. 비의 형태와 서체의 특징 | 4. 맺음말 |
| 2.1 비의 형태 | <참고문헌> |
| 2.2 서체의 특징 | |

<초 록>

본고는 <집안고구려비>의 서체와 그것이 신라 서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비는 <광개토왕비>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그 형태와 서체가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비와는 다르다. 碑身은 납작한 장방형이고 碑首는 규형이며, 하부에는 돌기형 뿌리인 榑頭가 있어 碑座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전면의 명문은 10행, 매행 22자(마지막 행은 20자)로 총 218자이다.

서체는 해서 필의가 있는 예서인데 한대의 표준 예서와는 달라 ‘고구려풍의 예서’라고 해도 무방하다. 서체의 변천상으로 본다면 古隸인 <광개토왕비>보다 진화한 것으로 예서 필의가 있는 해서인 <중원고구려비> 앞에 두어도 어색하지 않으며, 6세기 신라비의 서풍과 유사하여 신라 서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안고구려비>는 질박한 고구려 예서 서풍을 보여주고, 신라 서풍에 영향을 미친 점에서 한국 고대 서예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要語: 집안고구려비, 광개토왕비, 圭首, 고구려풍 예서, 6세기 신라 서풍

* 본 논문은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2013 발표회”(2013. 5. 23)의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열화당책박물관 학예연구실장(hyun.s.jung@gmail.com)

접수일: 2014년 3월 8일 최초심사일: 2014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3월 20일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 of calligraphic script of *Jipangoguryeobi* and its influence on Silla calligraphy. The shape and calligraphic script of *Jipangoguryeobi*, built after *Gwanggaetowangbi*,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vious Goguryeo stelae. It is typical of Han stele shape because the head has a triangular shape, and the root shows it originally had a foot. The front is composed of 218 characters. It was written in clerical script with the brush technique of regular script. It can be called “Goguryeo style clerical script” due to its difference with the standard Han clerical script. Its calligraphic style in natural taste is similar to that of 6th century Silla stelae, so it seems to influence on Silla calligraphy.

The stele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ancient Korean calligraphy history in two aspects: its calligraphic script in a different taste and its influence on Silla calligraphy.

Key words: *Jipangoguryeobi*, *Gwanggaetowangbi*, triangular shape head,
Goguryeo style clerical script, 6th century Silla calligraphic script

1. 머리말

2012년 7월 29일, 중국 길림성 집안시 麻線縣 촌민 馬紹彬에 의해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이하 <집안비>, <그림 1>)는 처음부터 진위, 건립 시기 등에 대해 한·중 학계의 다양한 주장이 있었다. 특히 건립 시기에 관해서 한·중 연구자들은 공히 명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설, 즉 광개토왕대와 장수왕대를 제시했다. 명문의 판독을 통한 건립 시기로는, 7행 4-8자를 중국의 張福有와 孫仁杰이 ‘丁卯歲刊石’으로, 한국의 선주선이 ‘丁卯年刊石’으로 판독하였고, 필자도 글자의 結構 분석을 통해서 ‘丁卯年刊石’으로 봄이 타당함을 주장했다.¹⁾ 건비년으로 볼 수 있는 정묘 427년(장수왕 15)은 414년 건립된 <광개토왕비> 이후, 5세기 중후반에 세워진 <중원고구려비>(이하 <중원비>)²⁾ 이전이므로 고구려 서예의 변천 과정을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다.

<광개토왕비>와 <중원비>가 자연석인 것에 비해, <집안비>는 圭形의 碑首와 樁頭 즉 돌기형 뿌리를 가져 碑首, 碑身, 碑座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고구려 석비 양식을 보여 준다. 또한 서체의 변천 과정상으로도 <광개토왕비>와 <중원비> 사이에 두어도 무방할 정도로 고구려 서예의 발전 과정에 맞는 모습이다. 더불어 6세기 신라비의 서체와 유사한 점도 있어 고구려 서예가 신라 서예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일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는 <집안비> 서체의 특징을 통해 고구려 서예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1) 비에 관한 한·중·일의 연구 동향에 관해서는 정현숙, “<集安高句麗碑>의 발견 경위와 한·중·일의 연구 동향,”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판독 및 서체 비교』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발표회 자료집, 2013. 5. 23) 참조. 결국 분석을 통한 비의 건립 시기에 관해서는 정현숙, “서예학적 관점으로 본 <集安高句麗碑>의 건립 시기,” 『書誌學研究』 제56집 (2013) 참조.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비문의 판독, 건비 시기, 비의 성격, 비의 형태, 비문의 서체 등으로 세분하여 쟁점들을 논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강진원,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판독과 연구 현황,” 『木簡과 文字』 제11호(2013b) 참조.

2)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제설이 있으나 최근 새롭게 판독된 글자로 인해 문자명왕 4년(495)설과 간지와 날짜를 고려해 장수왕 37년(449)설이 우세하다(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자료집(상)』 (2005), 162).

신라 서예와의 연관성을 통해 한국 고대 서예의 정립 과정에서 고구려의 역할과 위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집안비>의 서예사적 의의를 인지하게 될 것이다.

2. 비의 형태와 서체의 특징

<집안비>의 재질은 粉黃色 花崗岩이다. 碑身은 납작한 장방형이며, 碑首는 圭形³⁾이다. 비의 우측 상단부가 파손되었으며⁴⁾ 비신의 하단이 상단보다 넓고 두껍다. 하단 중간의 돌기형 뿌리⁵⁾는 원래 碑座가 있었음을 말해주지만 현재까지 발견되지는 않았다.⁶⁾ 비의 네 면은 섬세하게 다듬어져 표면이 편평하고 매끈하다. 비석의 잔존 높이는 173cm, 너비는 60.6-66.5cm, 두께는 12.5-21cm다. 하단의 돌기형 뿌리의 높이는 15-19.5cm, 너비는 42cm, 두께는 21cm다. 비석의 무게는 464.5kg이다.

비석 전·후면 모두 글자가 있는데 글자 수가 많은 면을 전면으로 보았다. 전면 상단은 마모가 심하지만 하단은 상대적으로 마모가 적은 편이다. 서체는 隸書이며, 음각된 전면의 비문은 10행, 매행 22자(마지막 행은 20자)이므로 총 218자이다. 우측 상단부에 11자가 소실되었으며, 침식과 마모로 인해 일부 문자의 판독이 어렵다. 후면은 중간 부분의 1행만 확인 가능하고 나머지는 인위적으로

3) 규수 형태는 동한 이래 유행했다. <집안비>보다 후대인 북위 <韓顯宗墓誌>(499)도 규수인 점으로 보아, 중원 일대에서 성행했던 장례 문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洛陽市文物國編, 『洛陽出土北魏墓誌選編』(科學出版社, 2001), 220).

4) 原形을 포함한 실측도는 耿鐵華, “集安 高句麗碑의 判讀과 文字比較,”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 255 참조.

5) 돌기형 뿌리 형태인 樁頭는 동한 이래 유행한 비좌의 형태다. 이것은 <집안비>보다 후대인 북위 평성시기의 <劉賢墓誌>(452-465)와 낙양시기의 <元侔墓誌>(511)에서도 보인다(曹迅, “北魏劉賢墓誌,” 『考古』 第7期(1984), 615-621.; 洛陽市文物國編(2001), 248.; 정현숙, “북위 平城시기의 금석문과 그 연원,” 『書藝學研究』 제10호(2007), 222-226).

6) 그러나 규형비의 돌기 형태가 고구려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입증해주는 실물은 발견되었다. 耿鐵華(2013), 256.

훼손한 흔적이 확연하며, 筆痕은 있으나 판별이 어렵다.⁷⁾ 서체를 논하기 전에 당시의 석비 문화를 알기 위해서 먼저 비의 형태를 살펴보자.



<그림 1> <集安高句麗碑>, 隸書, 427, 고구려, 173×66.5×21cm,
文物報本(周榮順本A, 2012. 9. 25)

2.1 비의 형태

고구려는 비의 형식에서 <광개토왕비>나 <중원비>처럼 자연석을 이용함으로써 비수, 비신, 비좌의 전형을 따르지 않는 독자적인 석비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 비는 고구려 석비 문화의 이면을 보여준다.

7) 孫仁杰, “集安 高句麗碑의 判讀과 文字比較,”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 222-223.

主首는 동한 이래 螭首와 더불어 비석은 물론 드물게 묘지에서도 사용되었다.⁸⁾ 그러나 묘비 건립을 포함한 장례의 사치가 극에 달해 국가와 개인의 경제가 파산될 위기에 처하자 마침내 魏晉의 통치자들이 이를 금하기에 이르렀다. 위 무제 曹操(155-220)는 205년 “禁厚葬”을 선포하고,⁹⁾ 220년 자신의 장례에서도 금이나 옥 같은 보물의 사용을 금하고 검소하게 할 것을 명했다.¹⁰⁾ 더 나아가 위 문제 曹丕(재위 220-226)는 222년 자신의 사후 장례제도를 제정하여 검소하게 하고 능에 석물을 세우지 말라고 명했다.¹¹⁾ 이들과 이후의 남조 황제들의 강력한 통제로 동진과 남조에서는 입비 문화가 사라졌고,¹²⁾ 수도 남경에서는 <王興之宋和之墓誌>(340)와 같은 묘지 전명이 주로 만들어졌다. 대신 중앙의 관리가 허술한 변방에서 오히려 입비의 전통이 이어졌는데, 운남성에 세워진 동진의 <爨寶子碑>(405)와 유송의 <爨龍顏碑>(468)가 그것이다. ‘二爨’으로 불리는 이 두 비는 망자를 기린 묘비인데, 예서의 필의가 많은 해서¹³⁾로 쓴 <爨寶子碑>는 碑首가 반원형이다. 6세기 초 양 무제(재위 502-549) 일가의 神道碑가 만들어

-
- 8) 규수로 된 동한의 비석에는 <裴岑紀功碑>(137), <北海相景君碑>(143), <鄭固碑>(158), <鮮于璜碑>(165), <白石神君碑>(183), <張遷碑>(186) 등이 있고, 묘지로는 <孫仲隱墓誌>(175)가 있다.
- 9) 『三國志』『魏書』 권1, 27.; 陳壽 지음, 김원중 옮김, 『삼국지』 위서1 (민음사, 2007), 81.; 『宋書』 권15 『禮記』에 더 상세한 설명이 있다.
- 10) 『三國志』『魏書』 권1, 53.; 陳壽 지음, 김원중 옮김(2007), 110.
- 11) 陳壽 지음, 김원중 옮김(2007), 133-135.
- 12) 금비령은 장례 문화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명문의 내용에도 허위와 과장이 많아 이후 서진과 남조 때 더욱 강화되었다(Hyun-sook Jung Lee, “The Longmen Guyang Cave: Sculpture and Calligraphy of the Northern Wei(386-534),”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5), 227-231).
- 13) 위진시기 서체의 과도기에 해서의 필법을 지닌 예서를 ‘新隸體’라 불렀다(王靖憲 編著, 『中國書法藝術』第3卷 魏晉南北朝 (北京: 文物出版社, 1998), 188).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신예체는 오제에 속하지 않아 서체의 종류에 들어갈 수 없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그것을 해서에 포함시킨다(劉正成 主編, 『中國書法鑑賞大辭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6), 179.; 정현숙, “康有爲『廣藝舟雙楫』의 『傳衛』·『寶南』·『備魏』篇 譯註,” 『木簡과文字』 제11호(2013), 도판). 대표적인 작품은 동진의 <枳楊府君神道闕>(399), <爨寶子碑>(405), 북위의 <太武帝東巡碑>(437)다. 이들은 勒劃(가로획)의 起筆은 방필의 해서 필법이고, 수필은 동한 예서의 파세보다는 짧지만 비교적 강한 파세를 지녀 해서로의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지기 전까지 남조에는 이 두 비만 있는데, 이것은 남조 금비령의 엄함을 말해준다.

한편 위나라의 대표적인 규수비로는 예서로 쓴 <卍丘儉紀功碑>(245, <그림 2>)가 있다. 이것은 관구검이 正始 6년(245) 고구려를 격파하고 개선하기 전 군영에서 세운 것이다. 이 紀功碑의 잔편이 청 光緒 30년(1904) 집안현 도로 공사 때 국내성 서쪽 17km 지점 산비탈에서 발견되었다. 다행히 비편이 비의 상부라 현재 모습에서도 원형이 圭首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공비를 세우는 중국의 전통은 백제의 도성 부여에 세운 <唐平濟碑>(660)나 <唐劉仁願紀功碑>(66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耿鐵華는 광개토왕이 선대왕들을 위한 비석을 세울 당시 <卍丘儉紀功碑>의 규형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¹⁴⁾ 그리고 “이 비석에는 고구려 정벌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이 반겼을 리가 없다. 아마도 바로 그 때문에 이 비석은 결국 파괴되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비를 파손시킬 정도로 굴욕감을 느낀 고구려인이 <집안비>를 만들 때 그 비의 형태를 따랐을 것 같지는 않다. 강진원은 <관구검기공비>처럼 고구려 사회에서 전해오던 한대 석각물의 영향으로 본다.¹⁵⁾ 그는 종래 고구려 국가권력이 한대의 문물을 수용하는데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음을 지적한다.¹⁶⁾

한편 조조의 “禁厚葬” 이후 남조의 중앙에서는 사라진 입비 문화가 동시대 북조, 즉 5호16국에서는 계승되고 있었다. 고구려와도 친교를 가진 前秦에 예서비가 두 점 있다. 규수비인 <鄧太尉祠碑>(367)와 尖首平頂 형태의 <廣武將軍碑>(368)가 그것인데, 전자는 묘비고 후자는 경계비이자 기공비다. 조법종은 광개토왕이 전진의 규수비 형태를 따라 <집안비>를 세웠다고 말한다.¹⁷⁾

이처럼 규수 형태의 묘비 문화는 한대 이후 중원에서는 쇠퇴했고 대신 漢 문화를 흡수하여 적극적으로 수용·발전시킨 북조 전진에 의해서 그 전통이 계승되었

14) 耿鐵華(2013), 261.

15) 강진원(2013b), 131.

16) 강진원, “고구려 陵園制의 정비와 그 배경,” 『東北亞歷史論叢』 제39호(2013a), 37-38.

17) 東晉碑와 前秦碑의 상세 비교와 고구려의 전진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조법종, “集安高句麗碑를 통해 본 고구려비의 특성과 수묘제,”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고구려 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 2. 22) 참조.

다. 묘비인 <광개토왕비>의 건립은 禁碑라는 중원의 전통을 위반한 것이고, 전진의 묘비 문화와는 그 성격을 같이 한다. 다만 전진의 <등태위사비>가 규수비인 반면, <광개토왕비>는 자연석을 이용한 점에서 고구려의 독자성을 찾아볼 수 있다. <광개토왕비> 이후에 세워진 <집안비>의 형태는 이미 약 200년 전에 사라진 漢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당시 교섭 중이던 전진의 석비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일국의 문화는 보편적으로 먼 과거 왕조보다는 현재 교류가 활발한 인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2 서체의 특징

이 장에서는 장법과 자형, 그리고 결구 분석을 통해서 <집안비> 서체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고구려 서예사에서의 위치를 가늠해 보겠다. 명문의 서체는 예서이지만 자형은 편방형,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 골고루 있으며, 波勢가 강하지 않고 해서의 필법도 부분적으로 있다. 이것은 예서에서 해서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서체다. 이것을 한대 예서체¹⁸⁾ 또는 新隸體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⁹⁾ 신예체의 가장 큰 특징은 <龔寶子碑>(405, <그림 3>)처럼 勒劃(가로획)의 起筆이 방필의 해서 필법이고, 收筆은 짧으면서 강한 파세를 지니 예서의 필의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에서는 해서의 기필이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신예체의 기필처럼 방필이 아니며,²⁰⁾ 예서의 수필이 보이지만 신예체의 수필처럼 강하지 않다. 따라서 명문의 서체는 해서의 필의가 있는 예서지만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고구려풍의 예서’라고 부름이 적절하다.

<집안비>의 건비년인 427년은 남조 劉宋(421-479) 초기로, 이 시기의 서체는 주로 해서이고 예서의 필의가 많은 변환기적 특징을 띤다. 이 비와 동시대 예서인 <晉恭帝玄宮石碣>(421, <그림 4>)조차 장방형이 많으며, 기필은 해서 필법이

18) 耿鐵華(2013), 260.

19) 고광의,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형태와 書體,” 『高句麗渤海研究』 제45집(2013), 55.

20) 예외적으로 <표 2>의 ‘聖’자 첫 획의 기필과 수필은 신예체의 필법이다.

<集安高句麗碑>의 서체와 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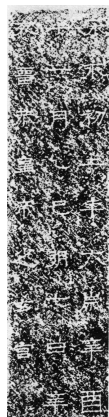
고 파세가 약해져 해서로의 과도기적 서풍을 보인다. <집안비>도 동한의 전형적인 예서를 벗어나 해서의 필법이 섞인 동시대 과도기의 서예사적 풍조를 따르고 있다. <표 1>은 전형적인 예서 글자고, <표 2>는 勒劃의 기필을 해서의 필법으로 쓴 글자다. 이것만으로도 <집안비>의 서체는 예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田丘儉紀功碑,
魏, 245



<그림 3> 爨寶子碑,
東晉, 405



<그림 4> 晉恭帝玄宮
石碣, 劉宋, 421

<표 1> 예서 필법의 <집안비> 글자

1-6	1-21	2-21	2-22	4-21	6-14	7-10	7-21	8-22	9-22	10-19

<표 2> 隸楷之間의 <집안비> 글자

5-9	5-16	6-10	6-18

비문은 자간과 행간이 정연한 장법을 취하고 있다. 행간은 1-2cm, 자간 2-3cm로 행간보다 자간이 더 넓다. 따라서 정방형 또는 장방형 자형이 눈에 띄고 파책이 동한 예서의 파책보다 더 절제되어 있다. 또한 획의 多少에 따라 글자의 大小도 달라 변화무쌍함과 자유자재함을 보여준다. 小字는 높이 2cm, 너비 2cm며, 大字는 높이 5.2cm, 너비 6cm 정도로 많게는 세 배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다.

결구도 정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어 글자의 대소만큼 변화가 많다. 필획을 살펴보면, 勒劃(가로획)과 努劃(세로획)의 굵기가 비슷하며 圓筆이 많고 轉折도 圓轉에 가까워 그 질박함이 이전의 <광개토왕비>의 원필의 古隸가 주는 웅건함과는 다르다.

여러 탁본 가운데 본고의 <집안비>는 『中國文物報』본이다. 이것과 이전의 <광개토왕비>, 이후의 <중원비>, 그리고 漢·魏碑와의 비교를 통해 서체의 특징을 살펴보자.²¹⁾

<표 3>, <표 4>는 한 번 쓰인 글자다. 전체 비문에서 예서의 결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글자는 <표 3>의 ‘基’자다. 중간 八 부분의 撇劃(삐침)과 波劃(磔劃, 波磔, 捺劃, 파임)이 전형적인 동한 예서의 필법이며, 서한 예서인 고예로 쓰인 <광개토왕비>와는 결구가 다르다.

‘開’자에서 <집안비>는 마멸로 인해 門 안 부분의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이전의 판독에서 그 아래 ‘國’자로 보이는 글자가 있어 ‘開’로 읽고 ‘開國’으로 확정할 것 같다. <집안비>는 글자의 중심이 반듯하고 <광개토왕비>의 결구는 특이하여 <집안비>와는 완전히 다르다. ‘國’자에서는 한비만 약간 편방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방형으로 한예와는 자형에서 차이가 있다. 선명한 <중원비>의 ‘國’은 한예와는 달리 원필의 해서로 쓰였다.

21) 비교는 판독에 이견이 없는 글자로 한정했다. 고구려 묵서명으로 연대가 확실한 <동수묘지>(357), <덕흥리묘지>(408)는 이 비와 서체가 다르며, <모두루묘지>는 연대가 불분명하여 제외했다. <광개토왕비>와 <중원비>의 탁본은 『옛 글씨의 아름다움』(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0)을 참조했다. 한·위비와의 비교는 <집안비>의 예서가 한나라 예서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전술했듯이 ‘聖’자에서 <집안비>의 첫 획 起筆은 해서 필법에 가까워 예서에서 해서로의 과도기적 필법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 획도 예서의 과획이 아닌 해서의 收筆로 쓰여 전체 명문에서 해서의 필의가 가장 강한 글자 중 하나다. <집안비>의 첫 勒劃은 예서 늑획의 특징인 蠶頭燕尾²²⁾ 모양으로 쓰인 동한의 표준 예서인 <사신비>의 늑획과 달라 <집안비>의 예서는 동한의 예서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中國文物報』의 “비문의 서체는 표준적인 한자 예서이며, 자형이 규범적이고 편평하면서 방정하다. (…) 잠두연미가 분명하다”²³⁾는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古’자도 <집안비>에서는 努劃(세로획)과 口가 늑획의 한 가운데 자리해 안정감이 있다. 늑획의 起筆은 해서의 필법이고 收筆은 예서의 짧은 과획이 있어 과도기적 필법이다. <광개토왕비>에서는 口가 늑획 만큼 넓어 <집안비>와는 결구 자체가 다르다. <중원비>의 늑획은 <집안비>나 <광개토왕비>보다 짧아 특이한데 해서에 더 가깝다. 隸楷之間의 필법으로 쓰인 <집안비>의 늑획은 ‘聖’자와 마찬가지로 예서 늑획의 특징인 蠶頭燕尾와는 조금 다르다. 이처럼 <집안비>의 예서는 한대 표준 예서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敎’, ‘發’, ‘於’자는 정방형인 <광개토왕비>, <중원비>와는 달리 편방형으로 보편적인 예서 자형이다.

22) 서예를 품평하는 용어로 동한 예서와 당 안진경 해서의 勒劃(가로획)의 起筆과 收筆을 표현할 때 쓰인다. 예서 기필에서 逆入藏鋒한 형상이 누에의 머리와 같고, 수필에서 휘어 올라가는 물결치는 형상이 제비의 꼬리와 같음을 비유한 말이다.

23) 集安文物局, “吉林集安新見高句麗石碑,” 『中國文物報』 제2판(北京, 2003. 1. 4). “碑文書體爲標準的漢字隸書, 字形規範, 扁平方正…蠶頭燕尾明顯.”

<표 3> ‘基, 開, 國, 聖, 古, 敎, 發, 於’자 비교

집안비								
	1-21	2-15	2-16	6-10	6-18	7-14	7-16	7-22
광개토왕비								
	1-1-10	4-5-9	1-4-30		3-12-2	4-5-17		4-4-23
중원비								
			6-22		7-6	5-22		
한·위비								
		張君殘碑	鮮于璜碑 (165)	史晨碑 (169)	樊敏碑 (174)		楊著碑	

<표 4>에서 <집안비>의 ‘卅’은 해서에 가깝지만 <중원비>의 ‘卅’은 예서에 가까운데 긴 획이 특히 그렇다. <중원비>는 전절이 원필인 반면, 획은 蠶頭燕尾의 형태를 띄고 있어 <중원비>는 해서이면서 예서의 필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民’자의 마지막 획인 파획이 굵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 ‘文’자의 그것과 흡사하다. ‘更’자, ‘文’자에서 마지막 획인 파획은 그것이 굵고 강한 한대의 <장천비>와는 다르다. ‘更’자에서는 비슷한 굵기로 파획을 썼고, ‘文’자에서는 오히려 수필 부분에서 더 가늘어져 행서의 필의가 느껴진다. 이러한 형태의 ‘文’자는 한비 중에서는 파획이 강조되지 않은 <양회표기>와 가장 가깝지만 <양회표기>에서는 파획의 굵기에 변화가 없어 기필이 굵고 行筆하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집안비>와는 다르다. <표 7>에서 ‘不’자의 마지막 획인 파획도 ‘更’이나 ‘文’의 그것과 유사하여 <집안비>의 대각선 방향 파획은 동한 예서의 그것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看’자의 목도 <광개토왕비>에 비해 좁고 圓轉으로 쓰여 원만한 분위기를 연

출하는데, 이것은 6세기 신라비의 서풍과 유사하다. <중원비>는 <집안비>처럼 장방형이지만 목이 넓어 <광개토왕비>에 더 가깝다.

‘罪’자에서 <집안비>의 非는 𠂔 아래에서 반듯하게 중심에 자리하여 대칭을 이룬다. <표 3>의 ‘基’자와 마찬가지로 <집안비>는 전체적으로 글자가 반듯하여 안정감이 있다. ‘買’자는 좌우대칭인 <광개토왕비>와는 달리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 반듯한 ‘罪’에 비해 글자에 변화가 많지만, <사신비>와 견줄 만하고 같은 예서의 필법이다.

<표 4> ‘𠂔, 民, 更, 買, 看, 文, 罪’자 비교

집안비							
	8-12	9-4	9-9	9-22	10-13	10-16	10-19
광개토왕비							
	3-5-3	3-8-26	4-9-12	4-9-35	3-7-37		
중원비							
	7-18				4-5		
한·위비							
	華山碑 (165)		張遷碑 (186)	史晨碑 (165)		楊淮表紀 (173)	乙瑛碑 (153)

<표 5>, <표 6>은 두 번 이상 나오는 글자들이다. <표 5>의 ‘自’자에서 <집안비>는 예서 자형인 <광개토왕비>나 <王基碑>에 비하여 해서 자형인 장방형이다. 2행의 ‘承’자에서 <집안비>는 안정적인 예서 결구이며, 撇劃(삐침)과 파획의八字 모양이 동한 예서의 전형이나 파획이 약한 편이다. 5행의 ‘神’자에서 <집안비>는 장방형이고, 우측 申에서 <집안비>는 努劃(세로획)이 길지만 관통하지 않으며, <封龍山頌>의 ‘神’자와는 결구가 다르다. 2행의 ‘相’자에서 <집안비>는

勒劃(가로획)이 수평으로 전형적인 예서 필법이며, 木과 目의 안배가 좌우 반반이다. <광개토왕비>의 ‘相’자는 木이 1/3, 目이 2/3를 차지해 <집안비>와는 다른 결구인데, 이러한 불균형의 결구가 바로 <광개토왕비>의 특징이다. 9행의 ‘相’자에서 <집안비>는 우측 目이 좌측보다 위에 놓여 균형이 잘 맞지 않아 불안정하다. 좌우 균형이 맞아 안정적인 <史晨碑>, <曹全碑>와 비교하면 차이점이 보인다. <중원비>는 木과 目이 서로 비슷한 비율로 안배되고 目的 曄획이 우상향인 해서의 필법이다.

<표 5> 두 번 이상 나오는 ‘自, 承, 神, 相’자 비교

집안비	 1-10	 8-19	 1-11	 2-22	 2-9	 5-17	 2-21	 9-10
광개토왕비	 4-9-6			 1-4-21			 4-9-13	
중원비							 2-3	
한·위비	 孟孝琚碑	 王基碑 (261)			 封龍山頌 (164)		 史晨碑 (169)	 曹全碑 (185)

<표 6>의 ‘銘’자를 보면 4행의 부수 金은 예서의 결구를 취해 전체적으로 예서의 필의가 강하게 느껴진다. <孔宙碑>가 참고 될 만하다.

6행의 ‘人’자도 별획과 파획이 예서의 필법이다. <광개토왕비>에서도 2면의 ‘人’자에는 파획에 약간의 파세가 보이고, 3면에는 파세가 없어 서한예인 古隸에 가깝다. 8행의 ‘人’자에서 <집안비>의 파획은 [현재 탁본상으로] 아래를 향해 행서의 필의로 쓴 것처럼 보여 <중원비>와 유사하다.

7행의 ‘令’자에서 <집안비>는 머리 부분인 둘째 획의 쪽 뺀은 파세가 강하지 않고, <광개토왕비>에서는 이 부분이 절제되어 있다. <집안비>의 이런 필법은 후술하겠지만 <울진봉평리비>(524), <울주천전리서석>(525), <단양적성비>(551년경) 등의 신라비와 유사하다. <張景碑>(159)와 같은 예서 한비와 비교해 보면 그 다름을 알 수 있다.

‘碑’자에서 매획이 반듯한 <광개토왕비> 그리고 <陳君碑>와는 달리 <집안비>에는 변화가 있다. 특히 石의 口는 둥근 형태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네모나고 아래에 위치한 <광개토왕비>와 다르며, 늑획의 파획이 강한 <陳君碑>와도 다르다. ‘碑’자는 후술할 6세기 신라비의 결구와 유사하다.

<표 6> 두 번 나오는 ‘銘, 人, 令, 碑’자 비교

집안비	 4-22	 8-7	 6-19	 8-13	 7-17	 10-5	 8-6	 10-15
광개토왕비	 4-8-35		 2-5-28	 3-7-18	 4-9-30	 4-9-38		 4-8-34
중원비			 10-10	 좌2-21	 1-10			
한·위비	 孔宙碑 (164)	 夏承碑 (170)	 楊震碑	 張遷碑 (186)	 楊著碑	 張景碑 (159)	 楊統碑 (168)	 陳君碑

<표 7>에서 ‘戶’자를 보면 <집안비>는 해서 자형인 장방형이고, <광개토왕비>는 정방형에 가까워 결구가 조금 다르다. ‘後’자에서 彳변이 <집안비>의 첫 자는 셋째 획이 행서의 필법이고, 둘째 자는 예서의 필법이다. <광개토왕비>에서는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 우측 상부 ㄷ는 예서의 형태로 같으나, 하부의 마지막 획인 파획이 <광개토왕비>에서는 절제된 반면, <집안비>에서는 파세가 없는

상태에서 길게 뻗어 자유롭다. <焦君碑>의 파세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집안비>, <광개토왕비> 모두 ‘不’자의 마지막 획인 파획은 예서의 파세가 없어 <표 4>의 ‘文’자의 파획과 유사하다. <집안비>의 대각선 방향의 파획은 동한 예서인 <공표비>와 다르며,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신라비와 유사하다. ‘得’자에서 <석문송>의 파세가 없어 한예와는 구별된다. <광개토왕비>에서는 방정한 결구를 취한 반면, <집안비>에서는 좌우의 위치와 형태가 엉클어진 듯 蕩逸하다.

<표 7> 두 번 나오는 ‘戶, 後, 不, 得’자 비교

집안비								
	3-8	4-6	8-17	8-22	9-5	9-19	9-6	9-20
광개토왕비								
	4-7-19	4-8-38	2-4-32	2-5-6	3-2-14	3-5-19	4-9-11	4-9-24
중원비								
					좌1-10			
한위비								
	校官碑 (181)			焦君碑		孔彪碑 (171)	石門頌 (148)	

<표 8>, <표 9>에서처럼 여러 번 쓰인 글자에는 同字異形을 취해 변화를 주었다. <표 8>의 ‘王’자에서 <집안비>는 마모가 심하지만 남은 획으로만 판단해 보면, 마지막 획의 기필은 해서의 필법이고 수필에는 파획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5행 16자인 ‘王’자는 세 번째 늑획(가로획) 기필에 해서의 필의가 농후한 대표적인 과도기 글자 중 하나다. <중원비>의 좌측면 글자의 마지막 획 수필에는

파세가 있어 예서의 필의가 있다.

‘烟’자의 火는 마모가 심하지만 <집안비>, <광개토왕비> 모두 좌측 火가 1/3을 차지하는 포치는 공통적이지만, 우측의 전절은 <집안비>는 圓轉, <광개토왕비>는 方折로 다르다. 특히 8행의 원에 가까운 우측 부분은 신라비와 유사한 결구다.

<표 8> 네 번 나오는 ‘王, 烟’자 비교

집안비							
	1-13	1-18	5-11	5-16	3-7	3-22	4-5
광개토왕비							
	1-1-7	1-7-9	4-5-14	4-5-20	3-7-19	3-7-26	3-7-29
중원비							
	1-7	1-9		좌3-20			
한·위비							
	西狹頌 (171)	武梁祠堂 題字 (147)	曹眞碑 (231)	廣武將軍 碑(前秦, 368)	受禪表 (魏, 220)		

<표 9>에서 <집안비> 1행 ‘世’자의 둘째 획 ㄱ부분의 두 노획의 기필은 해서의 필법으로 썼다. 그러나 마지막 획이 길어 편방향의 자형이고, 따라서 예서의 필법으로 쓰려한 의도가 보인다. 반면 8행 ‘世’자에는 예서의 파획이 없고 ㄱ부분의 전절을 둥글게 굴리고[圓轉] 이어지는 늑획을 약간 俯勢로 처리하여 행서의 필의가 있다. 안쪽의 ㄱ부분은 圓轉으로 써 전서의 필의가 있다. 10행의 ‘世’자의 마지막 획에는 예서의 파획이 보인다. 이렇게 <집안비>에서 동일자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의 다양한 필법을 구사하여 변화미를 보여준다.

<광개토왕비>에서는 예서의 필법으로 구사했는데 자형을 정방향 또는 편방향

으로 바꾸면서 변화를 주었다. <광개토왕비>는 <집안비>보다 예서의 파획이 더 분명히 보인다. 일반적으로 <광개토왕비>는 東漢隸의 파획이 생기기 이전의 西漢隸인 古隸로 알려져 있으나,²⁴⁾ <표 9>는 <광개토왕비>에 동한예의 파획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안비> ‘以’자의 가장 큰 특징은 좌측부분의 口를 원형으로 썼다는 것이다. 이것은 <광개토왕비>나 한비에서 네모로 쓴 것과 달라 원만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서풍은 6세기 신라비와 유사하다. 우측 부분의 파세가 한비만큼 강하지 않은 것도 한나라 예서와 다른 점이다.

<표 9> 네 번 나오는 ‘世, 以’자 비교

집안비							
	1-5	3-19	8-18	10-8	3-9	4-21	8-15(?)
광개토왕비							
	1-4-7	1-4-28	1-6-35	3-9-26	1-6-32	2-4-31	2-6-25
중원비							
			1-16	1-17			
한·위비							
			魯峻碑 (173)	張遷碑陰 (186)	石門頌 (148)	婁壽碑 (174)	曹全碑 (185)

<표 10>의 <집안비> ‘之’자는 마지막 획이 거의 수평이고 收筆에 약간의 파세가 있는 것도 있지만, 한비의 그것만큼 강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집안비>에는 파획이 거의 없고 <광개토왕비>에는 파획이 있어 필법이 다르고, 결구도 서로

24) 서한 예서인 고예(예서)와 동한 예서인 예서(팔분)의 구별은 정세근·정현숙, “『康有爲『廣藝舟雙楫』의 『自敘』 및 『本漢』篇 譯註,』 『木簡과 文字』 제10호(2013), 343-344 참조.

다르다. <중원비>의 ‘之’자에는 해서의 필법이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다.

‘其’자에서 8행을 제외한 나머지 셋을 보면 <집안비>는 장방형이고, 여섯 번째 획인 늑획(가로획)의 收筆에 파세가 없어 해서의 결구이다. 이것은 <광개토왕비>나 한비와는 구별된다.

<표 10> 다섯 번 나오는 ‘之, 其’자 비교

집안비	 1-19	 2-7	 6-20	 9-3	 9-16	 7-18	 8-8	 9-21	 10-14	 10-18
광개토왕비	 2-5-2	 2-5-8	 4-9-20					 4-7-1		
중원비	 2-9	 4-19	 5-4	 7-14						
한비	 景君碑 (143)	 衡方碑 (168)	 夏承碑 (170)	 西狹頌 (171)	 婁壽碑 (174)	 楊著碑	 張遷碑 (186)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집안비>는 몇 글자가 <광개토왕비>와 유사하지만 전체적인 서풍은 더 질박하고 자유자재한 편이며, 오히려 6세기 신라 비의 서풍에 가깝다. 서체는 예서이나 파세가 강한 동한 예서와는 다르게 파세가 약하고, 몇 글자는 隸楷之間의 필법으로 썼다. <광개토왕비>가 파획이 없는 서한 예서인 古隸를 기본으로 하여 파획이 있는 동한 예서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면, <집안비>는 예서지만 파세가 강한 동한 예서와는 달리, 파세가 약한 예서에 해서의 필법을 수용한 전환기적 글씨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것을 ‘고구려풍의 예서’라 칭해도 무방하다. <집안비> 이후에 세워진 <중원비>는 해서지만 예서의 필의가 많다.²⁵⁾ 따라서 이 세 비에서 고구려 서예의 변천사를 읽을 수 있다.

25) 서체를 고졸한 예서(鄭永鎬, “中原文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研究展望,” 『史學志』第13輯(1979),

3. 신라 서예에 미친 영향

전술했듯이 <집안비>의 서풍은 예서의 전형인 동한 隸書와 다르며, 서한 古隸의 웅건한 서풍을 지닌 <광개토왕비>와도 다르다. 그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해서 필의가 있는 예서는 오히려 70여 년 후에 건립된 6세기 신라비의 예서 필의가 있는 해서의 꾸밈없는 서풍과 유사하다.²⁶⁾ 따라서 이 장에서는 6세기 신라비 글자와의 비교를 통해 <집안비>가 신라 서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다.

<집안비> 발견 이전의 연구는 대부분 6세기 신라 서예의 근원을 <광개토왕비>에서 찾았다. <광개토왕비> 서체와 동일한,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된 <廣開土王壺杆>(415)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광개토왕비> 글씨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다.²⁷⁾

그 배경으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들 수 있다. <광개토왕비>에는 ‘신라의 요청으로 왜를 물리치기 위해서 5만의 고구려군이 신라에 출병하여(400), 왜를 크게 무찔렀다. 예전에는 신라 寐錦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를 하며 聽命한 일이 없었는데, 광개토왕대에 이르러 (이번 원정으로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하니) 신라 매금이 (스스로 와서) 조공하였다’²⁸⁾고 적고 있다. <중원비>에는 고구려의 新羅土內幢主가 신라 영토에 주둔하고 있었다(449)는 기록이 있다.²⁹⁾ 『日本書紀』에는 고구려 군대가 경주에 주둔하다가 몰살당하는 기록(464)이 있으며, 『三國史記』 『地理志』에는 지금의 경상북도 내륙·해안 지역에 고구려의 옛 땅이

8. 金洋東, “中原 高句麗碑와 高句麗 金石文의 書體에 대하여,” 『高句麗研究』 제10집(2000), 583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예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任昌淳, “中原高句麗碑古碑小考,” 『史學志』 第13輯(1979), 54; 孫煥一, “中原 高句麗碑의 書體,” 『高句麗研究』 제9집(2000), 127)로 봄이 옳다.

26) 정현숙, “6세기 신라금석문의 서풍,” 『木簡과 文字』 제6호(2010) 참조.

27) 孫煥一, “高句麗 廣開土大王碑 隸書가 新羅 書體에 미친 影響,” 『高句麗研究』 제13집(2002). ; 이순태, “<迎日冷水里新羅碑>의 서풍 연구,” 『書藝學研究』 제20호(2012), 15-19.

28) 盧泰敦, “廣開土王陵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18-19.

29) 徐永大, “中原 高句麗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49. 新羅土內幢主라는 관직명은 신라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는 고구려군 사령관이란 의미다.

있었다고 적혀 있다.³⁰⁾ 사실상 고구려와 신라 관계는 377년, 388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신라의 첫 대중국 교섭인 진진과의 통교가 고구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³¹⁾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이러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신라 서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광개토왕비> 이후에 세워진 <집안비>와 6세기 신라비 서풍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고구려 서예와 신라 서예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다시 조명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이 장은 <집안비>를 통해서 고구려 서예가 신라 서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試探의 장이 될 것이다. 동일자 비교를 통해 그 同異를 살펴보자.

먼저 전체적인 서풍의 유사점은 질박하고 온화하다는 것이다. 자형은 편방·정방·장방형이 모두 있고 원필이며, 획의 굵기에서 변화가 심한 보편적인 예서나 해서와는 달리 그 굵기가 비슷하다. 직각으로 내려온 전절은 꺾임이 일반적인 해서와 달라 예서의 기운이 농후한 것이 6세기 신라비의 특징인데, <집안비> 또한 그러하다.

<표 11>의 ‘自’자에서 <집안비>는 해서의 자형인 장방형을 취해 정방형인 <광개토왕비>나 편방형인 한비보다는 신라비에 더 가깝다. ‘之’자에서 마지막 파획의 파세가 강하지 않고 같은 굵기로 길게 뻗은 형태가 <단양적성비>(551년 경)와 흡사하다. ‘國’자에서 정방형의 □ 획의 굵기가 다 같은 것도 <단양적성비>와 유사하다. ‘烟’자에서 좌우의 비율이 같고 굵기의 변화가 없는 필획, 편방형의 자형도 <단양적성비>에 가깝다. ‘令’자에서 둘째 획의 파세가 강하지 않은 필법은 <울진봉평리비>(524), <단양적성비>, <창녕진흥왕순수비>(561) 등과 닮았다. ‘興’자를 속자인 ‘与’로 쓰는 것도 <단양적성비>, <창녕진흥왕순수비>에서 볼 수 있다. ‘乚’을 乚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6세기 후반의 <황초령진흥왕순수비>(568), <대구무술명오작비>(578)를 제외한 대부분의 6세기 전반 신라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30) 더 상세한 5세기 전반 고구려와 신라의 주종관계는 정운용, “고구려와 신라·백제의 관계,”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2005), 87-88 참조.

31) 徐榮一, “廣開土太王代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 『高句麗研究』 제13집(2002) 참조.

<표 11> ‘自, 之, 國, 烟, 令, 與, 過(道)’자 비교

집안비							
	1-10	1-19	2-16	3-22	7-17	10-17	10-20
신라비							
	적성비 (11행)	적성비 (22행)	적성비 (11행)	적성비 (10행)	봉평비 (4행)	창녕비 (6행)	적성비 (14행)

<표 12>에서도 <집안비>와 신라비의 유사성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人’자에 서 첫 획의 굵기가 같고, 收筆이 머무는 듯 강조되는 예서의 필법이 아닌 해서의 필획인 점, 파획에서도 파세가 강조되지 않은 점이 서로 유사하다.

‘更’자에서 丿 변은 <집안비>는 예서의 필법, <단양적성비>는 해서의 필법으로 각각 다르나, 우측 상부 ㄴ와 마지막 파획은 예서의 필법으로 쓰여 유사하고, 특히 파획에 파세가 강조되지 않고 같은 굵기로 길게 쓴 것은 더욱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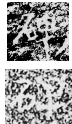
‘更’자, ‘文’자의 파획이 예서의 필법이 아니므로 파획이 강한 동한 예서와는 다르다. ‘更’자에서는 비슷한 굵기로 파획을 썼고, ‘文’자에서는 오히려 수필 부분에서 더 가늘어져 행서의 필의가 느껴진다. ‘更’자의 파획은 <단양적성비>와, ‘文’자의 파획은 <울주천전리서석>과 비슷하다.

‘其’자에서 <집안비>는 정방형, <단양적성비>는 편방형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해서 필의와 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碑’자에서 <집안비>는 편방형이고 <울진봉평리비>는 장방형이지만, 石의 위치가 卑보다 높고 결구가 자유분방함은 서로 닮았다. <창녕진흥왕순수비>와도 분위기가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광개토왕비>보다는 <집안비>가 신라비의 필법과 결구에 더 가깝다. 전체적인 서풍도 방정한 정방형에 웅건한 <광개토왕비>보다는 모든 자형이 혼재하여 변화가 많으면서 질박한 <집안비>가 6세기 신라비와 더 유사하다. 이로 인해 고예이면서 예서 필의가 가미된 <광개토대왕비>보다는, 예서이면서 해서의 필의가 있는 <집안비>가 예서의 필의가 많은 해서로 쓰인 6세기 신라 서예

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서체의 변천 과정이며, 가까운 시기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한다.

<표 12> ‘人, 後, 世, 更, 其, 碑, 文’자 비교

집안비							
	8-13	8-17	8-18	9-9	10-14	10-15	10-16
신라비							
	천전리 (5행)	적성비 (7행)	냉수리비 상면	적성비 (15행)	적성비 (16행)	봉평비 (10행), 창녕비 (20행)	천전리 (3행)

지금까지의 논한 바를 종합해 보면, <집안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구려 서예사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 서예사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구려 예서 서풍을 보여준다. 현전하는 고구려 최고 비인 <광개토왕비>가 웅건하고 진취적인 고구려 기상을 보여주는 서풍이라면, 이후에 세워진 <집안비>는 자연스럽고 온화한 서풍을 지니고 있다. 또한 건립 시기뿐만 아니라 서체나 서풍도 <광개토왕비>와 <중원비> 사이에 위치하여 그 공백을 메워줌으로써 고예, 예서, 해서로 나아가는 고구려 서예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준다.

둘째, 신라 서예에 미친 영향이다. 선행 연구들은 한결같이 6세기 신라 서예의 연원을 <광개토대왕비>에서 찾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더 가까운 <집안비>가 신라비의 필법과 결구, 그리고 서풍과 더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고구려 서예가 신라 서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일보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집안비>가 한국 고대 서예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해인 427년(장수왕 15)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 <집안비>의 서체는 예서이다. 그러나 중국 측의 주장과는 달리, 예서 늑획의 전형인 蠶頭燕尾 형태의 동한 예서와는 다르고, 동시대 유송의 예서와도 다르다. <집안비>의 예서는 이전의 <광개토왕비> 예서인 古隸를 진일보시킨 것이다. 비의 글씨는 해서, 행서, 심지어 전서의 필의도 지니고 있어, 당대 예서에서 해서로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풍격을 지니면서 질박하고 온화한 <집안비>의 예서를 ‘고구려풍의 예서’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 한대 예서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또한 파세가 강하지 않고 획의 굵기가 일정하며, 원필의 소박한 서풍은 6세기 신라 서풍과 상통하여 <집안비>가 신라 서예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었다. <광개토왕비>에서 6세기 신라비 서풍의 연원을 찾은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본고는 <광개토왕비> 이후에 건립된 <집안비>가 6세기 신라 서풍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점에서 <집안비>는 신라 서예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다.

<집안비>의 서체를 통해 본 고구려인은, <광개토왕비>에서 보여준 주체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교섭 중인 인접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개방성을 지녔으며, 더불어 그것을 조화시켜 표현할 줄 아는 미감을 지녔다. 또한 고구려는 자국의 서예 문화를 교류 중인 신라에 전파함으로써 한국 고대 서예 문화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참고 문헌>

[원전]

『三國史記』.

『三國志』.

『宋書』.

『日本書紀』.

[국문]

강진원. “고구려 陵園制의 정비와 그 배경.” 『東北亞歷史論叢』 제39호(2013a). 7-52.

강진원.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판독과 연구 현황.” 『木簡과 文字』 제11호 (2013b). 105-134.

耿鐵華. “중국 지안에서 출토된 고구려비의 眞僞문제.”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 249-271.

고광의.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형태와 書體.” 『高句麗渤海研究』 제45집 (2013). 55-75.

고구려연구회 편. 『廣開土好太王碑研究100年』 (『高句麗研究』 제2집). 학연문화사, 1996.

고구려연구회 편. 『中原高句麗碑 研究』 (『高句麗研究』 제10집). 학연문화사, 2000.

고려대학교박물관.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자료집(상)』. 2005.

金洋東. “中原 高句麗碑와 高句麗 金石文의 書體에 대하여.” 『高句麗研究』 제10집(2000). 577-595.

盧泰敦. “廣開土王陵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35.

徐永大. “中原 高句麗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6-53.

- 徐榮一. “廣開土太王代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 『高句麗研究』 제13집(2002). 37-56.
- 孫仁杰. “集安 高句麗碑의 判讀과 文字比較.”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 219-249.
- 孫煥一. “中原 高句麗碑의 書體.” 『高句麗研究』 제9집(2000). 109-139.
- 孫煥一. “高句麗 廣開土太王碑 隸書가 新羅 書體에 미친 影響.” 『高句麗研究』 제13집(2002). 29-60.
- 이순태. “<迎日冷水里新羅碑>의 서풍 연구.” 『書藝學研究』 제20호(2012). 5-35.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옛 글씨의 아름다움 - 그 속에서 역사를 보다』. 2010.
- 任昌淳. “中原高句麗碑古碑小考.” 『史學志』 第13輯(1979). 53-58.
- 정세근, 정현숙. “『康有爲『廣藝舟雙楫』의 『自敘』 및 『本漢』篇 譯註.” 『木簡과 文字』 제10호(2013). 337-371.
- 鄭永鎬.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研究展望.” 『史學志』 第13輯(1979). 1-20.
- 정운용. “고구려와 신라·백제의 관계.”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 대학교박물관, 2005). 84-94.
- 정현숙. “북위 平城시기의 금석문과 그 연원.” 『書藝學研究』 제10호(2007). 205-231.
- 정현숙. “삼국시대의 서풍.” 『옛 글씨의 아름다움 - 그 속에서 역사를 보다』. (이천 시립월전미술관, 2010). 222-237.
- 정현숙. “6세기 신라금석문의 서풍.” 『木簡과 文字』 제6호(2010). 35-68.
- 정현숙. “<集安高句麗碑>의 발견 경위와 한·중·일의 연구 동향.”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판독 및 서체 비교』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발표회 자료집, 2013. 5. 23). 1-11.
- 정현숙. “康有爲『廣藝舟雙楫』의 『傳衛』·『寶南』·『備魏』篇 譯註.” 『木簡과 文字』 제11호(2013). 263-307.
- 정현숙. “서예학적 관점으로 본 <集安高句麗碑>의 건립 시기.” 『書誌學研究』 제56집(2013). 297-326.
- 정현숙, 조미영, 이순태, 이은솔, 황인현. “<集安高句麗碑>의 서체 분석.”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판독 및 서체 비교』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발표회

자료집, 2013. 5. 23). 16-31.

조법중. “集安高句麗碑를 통해 본 고구려비의 특성과 수요제.”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 2. 22). 69-101.

陳壽 지음. 김원중 옮김. 『삼국지』. 서울: 민음사, 2007.

韓國古代社會研究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중문]

洛陽市文物國 編. 『洛陽出土北魏墓誌選編』. 北京: 科學出版社, 2001.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鑑賞大辭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6.

王靖憲 編著. 『中國書法藝術』 第3卷 魏晉南北朝. 北京: 文物出版社, 1998.

曹迅. “北魏劉賢墓誌.” 『考古』 第7期(1984). 615-621.

集安文物局. “吉林集安新見高句麗石碑.” 『中國文物報』 제2판(北京, 2003. 1. 4).

集安市博物館 編著. 『集安高句麗碑』. 吉林: 吉林大學出版社, 2013.

[영문]

Lee, Hyun-sook Jung. “The Longmen Guyang Cave: Sculpture and Calligraphy of the Northern Wei(386-534).”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5.

